

| 특별기고 |

## 울산문화재심의위와 SK케미칼에 바람

우리나라에서 7천년 전에 쓰던 식품창고를 본 적 있습니까? 또 그 시대의 작살촉이 박힌 고래뼈가 출토된 곳을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희유한 곳이 울산 남구 황성동 처용암에서 200m 쯤 떨어진 해변에 몰려있습니다.

이 해변 2만m<sup>2</sup>를 매립해 SK케미칼 공장을 증설한답니다. 산업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이곳만은 보존하기를 앙망합니다.

이번 주말에 울산시문화재위원회가 처용암 인근 SK케미칼 공장입주가 합당한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먼저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해변은 다른 데서 달리 볼 수 없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10여년 전 동국대학교 박물관팀이 이 곳을 조사했을 때 7천년 전쯤 사용한 토기 조각 수천점과 도토리 구멍이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빨층에서 찾은 도토리 무더기는 선사인이 바닷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하려고 묻은 것이었습니다. 선사인들의 먹을 거리와 간수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한 그 유적지는 흙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3년전 바로 그 옆에서 부산의 문화재발굴팀이 사슴뼈를 갈아 만든 작살촉이 여러개가 박힌 고래뼈를 찾아냈습니다. 7천년 전의 유물로, 반구대암각화에 나타난 고래잡이가 실제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곳도 물어버리고 도로



윤대헌  
항토사연구가

를 냈습니다.

선사시대 식품창고와 포경유적이 겹쳐있는 이곳은 1천년 전 현강왕이 다녀감으로써 처용설화를 빚어낸 곳입니다. 처용암이 바로 그 증

좌입니다. 이런 곳이 한국 어디에 있으며,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SK케미칼이 매립하고 파일을 박으려는 곳은 개펄입니다. 개운포에서 마지막 남은 개펄입니다. 지금도 물이 빠지면 바지락을 캐고 갯지렁이를 잡습니다.

이 개펄이 아직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은 처용암이라는 문화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매년 처용축제때마다 이곳에 제사 지내러 왔으니 차마 범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마저도 없애려 합니다. 이 개펄이 남아있어야 처용암도, 그 밖의 문화재로 함께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처용암 앞 선창가에 60여년을 살다가, 산업화에 떠밀려 가장 늦게 이주했습니다. 사람은 옮겨지만 저 오랜 문화흔적만은 지우지 말기 바랍니다.

금명간 이 문제를 심의할 문화재위원회나,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는 SK케미칼 측이 부디 이 곳을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 처용설화 발상지 이렇게 흐트러 버리나

인근 바다 2만9천㎡ 매립 SK케미칼 공장 건립  
경관저해 차단할 수림대 설치 등 조건부 허가  
“막지못해 답답하고 한계 느껴” 심의위원 토로

“울산시 문화재위원으로 한계를 느낀다. 심정적으로 매립에 반대하는 위원이 많았으나 시 담당자들이 협조요청을 해왔고, 시행사도 만반의 서류를 준비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처용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안건을 심의한 모 울산문화재심의위원의 말이다.

그는 “문화재위원으로서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개발을 막지 못해 답답하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케미칼이 남구 황성동 처용암 인근 육지와 바다를 매립해 화학공장을 지으려는 안건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붙여 가결했다.

SK케미칼은 처용암 인근 공유수면 2만9천㎡를 매립하고 육지부 8만3천㎡를 포함한 곳에 6천여원을 들여 2015년까지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회사측은 당초 3만6천㎡를 매립하려고 했으나 처용암 문화재보호구역에 직접 저촉되는 7천여㎡는 제외했다. 그러나 울산

시는 직접 저촉되는 곳 외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범위를 넓혀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SK케미칼은 신청서에서 “공장부지 조성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적시, 처용암 일원 문화재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진 견해를 보였다.

처용암 일원은 처용설화 발상지다. 이 설화는 교과서에도 실리고 3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을 만큼 국문학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 처용암과 공장부지 사이에는 7천여년 전에 사용한 토기 수천 점과 저장용 도토리가 발견된 세죽패총이 있다. 최근에는 사슴의 뼈를 갈아 만든 작살 축이 박힌 고래 뼈가 여러 점 발견돼 국내의 이목을 끌만큼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계 인사들은 회사측이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하고, 울산시가 그 판단을 받아준 것도 납득키 어렵다는 견해다.



SK케미칼이 신청한 남구 황성동 처용암 인근 바다매립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돼 처용암 설화 발상지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구 다운동 윤모(62)씨는 “반구대암각화가 역사기록이 없던 시대의 특급 문화재라면, 처용암 일원은 삼국유사에 뚜렷한 기록이 있는데다 선사유적까지 겹쳐있는 희귀한 문화유산”이라며 “근접한 거리에 바다를 매립하고 공장을 세우면 그 유

산가치는 반토막 난다”고 말했다.

문화재심의위가 SK케미칼의 문화재현상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조건은 공장을 가리는 수림대를 설치하고 수중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것 등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곳

에 공장을 짓도록 울산시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가 매립기간만 1년을 계획했으나 공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건부 승인에 따라 관련업체와 의논해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복 기자



남구 황성동 처용암 인근 개펄에 대규모 화학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왼쪽) 2011년 정월대보름날 같은 장소에 진두바리와 명주도박 등 해조류들이 썰물뒤 드러난 개펄에 펼쳐져 있다 정동석 기자

# 처용설화 근거지 묻어버리다

## SK케미칼, 공장 건립에 문화재 지척 바다 매워

### 논문 300편 나온곳, 국문·고고학계 어떻게 불지

처용설화 발상지의 가장 근접거리에도 또 공장이 들어선다. 국문학사에 유례없이 많은 논문을 산출하고, 스토리텔링의 보고로 여겨지던 장소가 묻히고 있는 것이다.

3일 남구 황성동 처용암 인근에서는 문화재보전지구에서 최고 35m까지 근접한 거리의 갯벌이 묻히고 있었다. 대규모 화학공장을 위한 매립사업이다.

SK케미칼(주)은 2015년까지 육지부 8

만3천㎡와 공유수면 2만3천㎡를 매립해 복합소재(PPS) 솔류션 제조공장 부지를 조성한다. 현재 공정 5%로 가설진입도로 건설이 한창이다.

이 일대는 선사시대 식품저장고를 비롯 반구대암각화 포경장면을 실증할 작살 박힌 고래뼈가 발견된 곳으로 문화재 밀도가 높다.

갯벌이 묻히고 공장이 들어서면 처용설화의 탄생 배경이 되는 해안풍경이 반감

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SK케미칼이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때 수중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조사보고서에는 사업구역과 가장 인접한 작살박힌 고래뼈 출토지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시 문화재심의위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직접 침범한 부분을 제외시켰으나, 처용설화 발상지 권역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처용암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연구한 이창업. 정재식 교수팀은 "처용암과 개운포 일원은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처용암 주변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에 변변한 방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토사 연구가 윤대현씨는 "300편 이상 논문이 나온 미증유의 문화자산을 이렇게 훼손해 들어가는 것이 용납될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재 테러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을 요구한 또 다른 향토사 연구자 서모씨는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유산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곳을 묻으면 대한민국 국문학계나 고고학계에서 어떻게 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 천년설화 발상지 처용암에 풍경이 없다

### 원경 공장시설에 둘러싸이고 근경 쓰레기 더미로 어지러워

천년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처용암 일대가 너무 혼란스럽다.

멀리서 보는 경관은 산업시설에 포위됐고, 가까이 다가가면 쓰레기와 부서진 기물들이 어지럽다.

6일 처용암 일대는 혼란스러웠다. 천년설화의 발상지라 보기 어려웠다. 국문화사와 고고학사, 국제교류사 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적지는 울산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유적이라 해야 마땅하다.

차마 외지인이 와서 볼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처용암은 진입로부터 흐트러져 있다. 입구 쪽의 야산은 20년째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며 깎아놓은 상태다.

대흥산업주식회사대표 이범제가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쉬엄쉬엄 토석을 채취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경관을 흐려놓고 있지만 규제가 안 되고 있다.

처용암 건너편은 신일반산단을 조성하면서 산을 깎아 벌거숭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대한 기물 탱크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외벽 녹화나 장식그림 같은 대책이 요망된다.

이 와중에 SK케미칼은 처용암에서 개운포 입구방향의 개펄을 메우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처용암이 포위돼 고립되는 형국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개운포의 상류인 외항강 쪽은 화학원료 수송배관에 가려졌

다.

처용암과 개운포의 원경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처용암 가까이서 보는 풍경은 어지럽고 더럽다. 해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넘쳐난다. 무허가 식당을 비롯해 각종 공업용 폐



SK케미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남구 황성동 개펄이 매립되고 있는 뒤쪽으로 벌거숭이가 된 야산과 처용암이 보인다.

기물들이 방치돼 있다.

오래된 선착장은 부서져 있다. 처용암 공원의 나무는 어떻게 가졌는지 후박나무 여러 그루가 윗부분이 잘려있다.

울산시와 남구청, 울산지방환경청은 공도지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나 불건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불의 처용암을 보러왔다는 김기홍(57)씨는 "설화가 밥 먹여 주냐고 말하겠지만, 그렇다면 관광산업을 왜 말하고 있고, 문화증진이란 목표를 왜 세우냐고 묻고 싶다"며 "누가 이곳을 천년설화의 발상지라 하겠냐"며 혀를 찼다. 이주복 기자

## 개발 논리에 묻히는 처용설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유럽 쪽에 열등감을 느끼는 게 역사문화 유산이다. 나라를 세운지 240년 남짓 됐으니 8~9세기는 고사하고 13~14세기 역사 흔적도 미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19세기 이후의 문명·문물을 내 놓은 게 대부분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미 대륙 원주민이었던 인디언 문화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근간을 그 이전 쪽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이렇게 소중하다.

울산 처용암 설화가 기록된 시기는 9세기다. 신라 헌강왕(875~886)이 울산 개운포에 나왔다가 처용을 만난 것으로 삼국 유사에 적혀있다. 이런 역사유적이 미국에 있었다고 치자. 최단거리까지 바다를 메워 공단을 조성했을 까. 주변에 화학공장이 들어선 것도 모자라 다시 공단을 조성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주변 수 km 이내 지역에 공장이 일선도 못하게 했을 것이고 이곳을 국가 기원의 발상지로 삼았을 것이다.

가까이 있으면 귀중함을 모른다고 했다. 다른나라였으면 나라터전으로 대접받았을 처용암이 공단에 뺄 둘러싸여 있다. 건너편엔 신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처용암이 위치한 개운포 안쪽에는 SK케

미칼이 연기를 내뿜고 있다. 그 안으로 좀 더 들어오면 미포산업단지가 조성돼 산업체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처용암 35m 앞까지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초소한의 거리만 남겨두고 모조리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똑 같은 역사유산을 두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한 쪽은 어떻게든 찾아내 보전하려는 반면 다른 한 쪽은 내동댕이 치려 한다.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모두 선진국이 아니다. 경제력 못지 않게 역사·문화의식도 갖춰야 한다. 우리보다 개인소득이 낮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결여가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니 매우 유감스럽다. 처용암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보전돼야 한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단의 규모, 처용암 주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등을 재심의하는 것이 그 첫 단계다. 산업용지는 언제, 어디서나 조성할 수 있지만 역사문화 유적은 한번 사라지면 되살려 낼 수 없다. 우리가 역사의를 지닌 시민인지 아닌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